

울릉도·독도 개척 전라도인 재조명

호남대, 20일 '약무호남 시무독도 2021특별전' 개최 1950년대 독도경비대 대검사진 등 각종 사료 공개

조선 후기부터 동해의 끝 섬인 경상북도 울릉도·독도를 배로 오가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지켜왔던 전라도인들의 울릉도·독도 개척사를 추적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호남대학교는 17일 "울릉도·독도를 개척한 전라도 사람들"을 주제로 한 '약무호남 시무독도(若無湖南是無獨島) 2021특별전'을 20일 오전 11시 광주송정역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온라인 전시 사이트(<https://www.honam.ac.kr/Dokdo>)를 통해 VR로 만나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

는 호남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과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탈탈라스쿨, 독도수호대가 주관하고,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고흥군, 광주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광주전남기자협회, 코레일 광주승정역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에는 구한말 울릉도로 건너가 배를 건조했던 배 목수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붕어(거두)톱'과 1885년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이 촬영한 울릉도 개척민들로 추정되는 거문도 어부와 어선 등의 울릉도 개척민 관련 옛 사진이 최초 공개된다.

또 '호남대 약무호남 시무독도 2019 울릉도 독도탐방단'이 독도 환경정화 활동 중 동도의 대한민국 영토표식 인

근 해변에서 발견한 1950년대 독도경비대의 대검 사진 등 울릉도·독도 개척 전라도인들의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사료와 사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붕어톱을 소장하고 있는 배 목수 신영길 씨(80·고흥군 봉래면)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로부터 고조부, 증조부께서 모두 배 목수였으며, 울릉도를 오가며 배를 짓는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며 "할아버지께서 배 목수인 저에게 거두(붕어)톱을 물려주시며 '고조부, 증조부님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 때 사용하시던 톱'이라고 하시던 말씀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우리땅, 독도수호특별전'을 시작으로 15년여 동안 전국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우리땅, 독도 바로 알기'와 '독도수호'에 앞장서 온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1882년 고종의 명으로 울릉도검찰사로 파견된 이규

원(李圭元, 1890년~1945년)의 '울릉도 검찰일기'에서 당시 울릉도 개척민 141명 중 81.5%인 115명이 고흥(홍양), 여수(홍해), 순천(낙안) 등 전라도 출신이었으며, 이들 전라도 어민들은 선박을 건조하고 미역,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어로활동 등을 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했음을 밝힌 연구 자료를 지난 2008년 학계와 언론에 발표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이번 특별전은 호남대학교가 우리땅 독도 수호를 위해 15년 동안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이자, 구한말 울릉도 독도 개척에 나선 전라도 사람들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전시"라며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전라도 사람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 가꾸고 '독도'라는 섬 이름을 부여해서 지켜 온 '우리 땅, 독도 수호'와 학술연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서부소방, 유물 수집·기증운동

광주 서부소방서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통해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증은 문헌, 서적, 사진, 의복, 장비 및 차량 등 특정 종류에 제한되지 않고 소방과 관련된 유물이면 모두 기증할 수 있다.

기증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https://firemuseum.or.kr>)에서 '소방유물기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국립소방박물관에 우편 또는 E-mail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소방유물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발급 및 감사패 수여 ▲각종 중요행사, 전시개막식 초청 ▲연중 박물관 간행물 무료 송부 등과 같은 예우 및 특전이 주어진다.

/인재영기자



서구 온라인 책 축제

독서의 계절을 맞아 지난 16일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빛고를 서구 책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줌(ZOOM)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책에 관한 공연과 손인형극, 작가와 함께하는 '북쇼' 등 다채로운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열렸다.

/김애리기자

전남대병원 간호사 67% '입사 2년내 퇴직'

정원비 현원 부족...서동용 "인력 확충 등 치우 개선 시급"

전남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간호사 입사자 퇴직 전 재직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입사 2년 이내 퇴직한 간호사가 지난해 92명(67.4%), 올해 71명(입사 1년 이내 28.2%·2년 이내 59.2%)에 달했

다.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에 부족했는데, 지난해 1천990명 정원에 17명이 부족했고 올해는 6명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간호사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간호사의 상당수가 입사 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대병원 간호사 수습기간은 타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상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수습기간이 길었다. 경상대병원 1년3개월, 경북대병원 9개월,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6개월이다.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이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는 것에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수습기간과 이에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구조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대병원의 간호 인력의 높은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립대병원의 간호직 증원요청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제대로 승인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감당한다며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확대마저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적정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적절한 치우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기자

오늘의 날씨 ▶예보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해돋이 06:41 해짐 17:54
달돋이 17:02 달짐 04:03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60 (아외건조 좋아요)
-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해)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0-0	목포	00:38	06:00
목포	0-0		12:53	18:10
순천	0-20		07:44	01:38
여수	0-20	여수	20:08	13:42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동-동/0.5-1.0m
 면바다 △ 북동-동/1.0-2.0m

오후 앞바다 ● 북-북동/0.5-0.5m
 면바다 △ 북-북동/1.0-2.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북동/0.5-1.0m
 면바다 ● 북-북동/1.5-2.5m

오후 앞바다 ● 북-북동/0.5-0.5m
 면바다 △ 북-북동/1.0-2.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19/화	☁ (9/16)	☁ (10/13)	☁ (11/16)	☁ (9/15)	☁ (8/17)	☁ (15/20)
20/수	☁ (6/15)	☁ (3/13)	☁ (6/14)	☁ (3/14)	☁ (4/16)	☁ (13/17)
21/목	☁ (6/17)	☁ (4/15)	☁ (6/16)	☁ (3/16)	☁ (4/18)	☁ (14/18)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전남대, 23일 국제노화심포지엄 개최

전남대학교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노인건강 증진 방안을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강구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가진다.

전남대 노인의학센터는 오는 23일 전남대 화순캠퍼스 의생명과학융합센터에서 국내외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제15차 국제노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노화심포지엄은 노화를 연구하는 교수·연구자·의료인 등 여러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노인의학·노년학·노인복지·간호·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학술행사

다. 이날 심포지엄은 '뉴-노멀 시대의 건강노화'라는 주제 아래, 오전 전체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이,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건강노화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학·공학 분야와 영양·간호·복지 분야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를 비롯해 노화 연구와 관련된 대학·병원·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특히 노화와 백세인 연구의 대가인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가 대회를 열어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임재만기자

서구보건소, 백신 이상반응 대응 총력

광주 서구의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자가 22만8천499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 대비 77.19%라는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 건 중 대부분의 증상은 접종 부

위의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근육통 등이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4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상반응 신고 건에 대해 서구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생명위중등의 경우에는 증 이상반응 관리로 전환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재영기자

마스크 공장도가판매
도·소매 환영 OEM 환영

덴탈 장당 100원
* 2000장 미만 택배비 소비자 부담

편안 장당 250원

KF-94 장당 250원

직접공장생산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시 북구 서하로(오치동)254 문의: **080-374-5046**

제조 공장이 필요하십니까?
땅값의 2~3억 원만 있으시면~

토지면적 3,300㎡ (구, 1,000평)이하
자금없이 건축하여 드립니다.

무상 보조금(10~20억) 상담해 드립니다.
서천, 영광, 태안 산업단지 입주하실 분

네이버 카페 **산단입주.com** 검색

자연과생명부동산컨설팅 **080-374-5046**
광주 북구 서하로 254

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비그라올라

비그라올라 2개월 분 - 9,800원

직접 체험하십시오!
7일분 조건없이 택배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5,000 소비자 선불부담)

드신 후 **60분 후 체크**하십시오!

자연과생명연구소 **전국 취급점 및 대리점 모집**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니온)
체험분은 문자로만 주문받습니다 **010-4624-5046**